성스러운 그림들의 특별한 여행



아주 특별한 그림들의 여행
저자 김소연
서해문집 펴냄/1만9천원

속(俗)의 세계에 발을 들인 동아시아 종교회화의 아름다움과 역동성 경험

근대 이전 동아시아 불교회화 여행과 그에 대한 큰 의미들을 고찰해 실어

불교회화가 어떤 이유로 여행 떠났고 아름다움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망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주계상 · 임정규, 〈오백나한도〉 중 응신관음.

역사 속에서 미술품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조각, 공예, 서적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물이 운반되어 지역을 초월한 문화 교류의 첨병 역할을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림은 적당한 크기로 만들 경우, 어떤 물건보다도 소지하거나 운반하기 편리했다. 종교화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람들은 길 위에서 자신을 지켜줄 신의 형상을 두루마리에 담아 품고 다니기도 하고 포교의 목적으로 먼 지역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 송 · 원대의 영파 불화와 조선 불화, 에도 시대 떠돌이 이야기꾼의 불화, 그리고 조선 후기 괘불을 차례로 만나본다. 이 그림들의 특별한 여행길을 따라나서는 일은 성(聖)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속(俗)의 세계에 발을 들인 동아시아 종교 회화의 아름다움과 그 역동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크기와 무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종교화가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각적 아름다움이었다.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무게가 그림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면 아름다움은 여행의 필수 조건이자 동력이었다.

일반적으로 종교예술을 통해 구현되는 조형성은 작품을 제작한 개인이나 집단의 신앙심 및 예술적 성취의 결과로 인식된다. 이는 종교예술을 경배하고 감상하는 대다수 사람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감상자가 아닌 종교예술의 제작자, 유통자, 전달자 등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이들에게 종교예술의 아름다움이란 각자의 목적(교리 전파부터 상업적 판매에 이르기까지)을 달성하기 위해 개개의 작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다.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미술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제작한 종교미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쉽지 않다. 즉 종교예술의 아름다움은 누군가에게는 시각물을 통해 드러나는 최종 결과물이지만, 때로는 신도, 소비자,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그렇기에 관람 대상의 문화와 취향과도 분리될 수 없었다. 따라서 종교예술품의 '아름다움'이란 모든 작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영원불변의 어떤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초상화나 풍경화와는 조금 다른 아름다움이다. 종교화의 미학이란 숭고함은 물론, 세속적 화려함, 압도적 규모,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작품에 자신을 이입할 수 있는 현실성에 이르기까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매력을 포괄한다. 그리고 그 매력은 개별 작품이 위치한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책은 지리적, 시대적 범위를 한정하여 근대 이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종교화, 즉 불교 회화가 어떤 이유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 여행을 가능케 한 이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여행에서 불교 회화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조망한다. 처음부터 타지로 옮겨질 것을 전제로 제작된 작품도 있고, 특정 장소에 봉안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돌아다닌 작품도 있었다. 때로는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상업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인 동시에 신의 대체물, 혹은 신의 이야기를 담은 성물(聖物)이기도 했던 종교화는 서예 작품이나 산수화 같은 비종교화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동했다. 성스러운 이미지가 성의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속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일이었기에 의례가 동반되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다.

한편, 이 책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현재 대부분 박물관에 머물러 있다. 사찰이 소장한 작품도 불당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서 운영하는 성보박물관에 있거나, 근처 박물관에 기탁 보관되고 있다. 오랜 여행을 거친 낡은 그림들인 만큼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이 작품들이 떠난 여행의 종착지일까? 지금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덧붙여놓은 감상과 해석이 이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한다. 미래에는 다른 환경과 문화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 또 다른 유무형의 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자 **김소연 교수**는?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고려 〈치성광여래도〉와 성수 신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시아의 해상 신앙과 시각물을 연구하면서, 자연환경과 종교 이미지의 관계로 관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함께 지은 책으로 〈한국 미술: 전통에서 현대까지〉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Zoomorphizing the Asterisms: Indigenous Interpretations of the Twenty-Eight Lunar Mansions in the History of China〉 〈성지(聖地)의 재해석: 일본 조쇼지(定勝寺) 소장 '보타락가산관음현신성경도'와 그 유전(流轉)을 통해 본 중국과 일본의 보타락가산 신앙〉 등이 있다.

禪, 문예 미학적 표현 가능할까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운주사 펴냄/2만원

한국문학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에서 소외된 불가문학을 고려말 삼사(三師)로 널리 알려진 백운 경한, 태고 보우, 나옹 혜조의 선어록과 선시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문예 미학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이 책의 필자 전재강 교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고우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선에 대한 안목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문학 이론과 한문 독해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가문학 또는 선가문학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이 책에서는 백운 경한, 태고 보우, 나옹 혜조의 선어록과 선시 등의 내용을 크게 3부로 구성해 풀어나가고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불가 문학은 조선을 거치며 방외의 문학, 비주류문학으로 차별받았으며, 오늘날 연구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유가문학을 비롯한 여성문학, 지방문학 등의 연구와 함께 반드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불교문학 연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때야말로 한국문학사의 전모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불가 문학과 선가문학에 대해 문예 미학적으로 접근한 저술이다. 이를 위해 고려 말 동시대를 살았던 선승 백운 경한과 태고 보우, 나옹 혜근의 문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세 사람은 선 수행에 몰두한 선사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남긴 선시와 선어록은 각기 개성적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아간 문예 미학적 성취는 그 어느 시대 작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이 책은 이들의 개성과 문학적 성취를 그 선적 이념과 연관해 유기적으로 드러내 보여 준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백운 경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 백운의 선어록인 〈백운화상어록〉의 편집 체제를 살펴보고 그 산문 서술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쌍방적 말하기, 일방적 말하기, 시적 말하기의 수용과 같은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백운이 내세운 선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그의 선을 무심선으로 보던 기존의 주장을 교정하고, 조사선과 조사선 수행법으로서의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선이 백운 선의 특징임을 밝히고, 어록에서 산문으로 이러한 선을 어떻게 문예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논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태고 보우의 선시와 선어록에서 보인 선의 비언어적 표현 원리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선에서 보이는 비언어적 행위를 동작과 음성으로 나누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밝힌다. 그리고 태고 선의 체계성과 문예 미학적 표현 방식을 논한다. 그의 선은 조사선에서 출발해 회광반조와 간화선, 염불선로 이어지는 상하 위계성과 간화선과 염불선 사이에 계열성이라는 두 가지 체계를 동시에 보이고 있어서 그의 선 체계가 매우 역동적이며, 이것이 극적이고 서술적으로 표현되어 선어록의 산문을 살아 움직이는 문예 미학적 작품이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나옹 혜근의 선이 가지는 성격을 논한다. 우선 나옹은 회광반조를 강조하는데, 간화선 수행법에서는 백운의 선 수행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화선과 염불선에 있어서는 보우의 선 수행법과 유사하지만 양자의 구체적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나옹이 선시에서 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어휘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논하고 있다. 체언과 용언 계열의 어휘는 선문에서 말하는 살(殺)과 활(活), 살활동시라는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여 논

고려말 三師 선어록 · 선시 미학 관점서 탐구

불가 · 선가 문학을 문예 미학적 접근한 저술

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선에서 사용되는 특정 어휘들은 고도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추출하여 선시나 선어록의 문예 미학적 특성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선가문학 연구의 과정은 만만치 않다. 일반 문학 연구 이론과 작품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한문 독해 능력이 있어야 하며, 더하여 불교 한문 독해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 한문 독해력은 문장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작품 내면에 표현된 불교 이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교와 선을 모르면 선가문학은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문학 이론과 한문 독해력은 물론이고 입적한 고우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선에 대한 안목을 갖춘 저자이기에 가능한 문예 미학적, 선적 통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전재강 교수**는?

경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양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안동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 〈상촌신흠문학연구〉 〈한문의 이해〉 〈시조문학의 이념과 풍류〉 〈선비문학과 소수서원〉 〈남명과 한강의 만남〉 〈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양상〉 〈한국시가의 유형적 성격과 작품 전개구도〉 등이, 역서로 〈서장〉 〈선요〉 등이 논문으로 〈어부가계 시조 연구〉 등 다수가 있다.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